

2014 교사용 지도서

백남준전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2014.3.8.~6.22

기획전 《달의 변주곡》

2014.2.26.~6.29

책임편집 - 구정화

디자인 - 이지영

발행일 - 2014.3.25

발행처 - 백남준아트센터

446-90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031-201-8500, www.njpartcenter.kr

목차

I. 전시 개요

II. 단체 관람 안내

III. 전시 연계 프로그램

IV.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V. 《달의 변주곡》

VI. 참고자료

본 교재는 2014년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전《말에서 크리스토까지》,
기획전《달의 변주곡》의 전시 관람 및 감상 지도를 위해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단체 관람에 대한 안내, 전시 전반에 대한 소개 및 교육과 연계된 간단한 설명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배포되고 있는 리플렛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01

전시 개요

1.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백남준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동료 예술가들은 백남준 식으로 말한다는 의미의 '파이키쉬 (Paikish)'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그만의 언어를 지칭하였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섞어 사용하는 파이키쉬는 백남준이 거쳐간 다양한 문화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메시지의 완벽한 수신을 원하지 않았던 백남준의 철학과도 연결된다. 그는 쌍방향 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잡음, 즉 오역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메시지의 발신 뿐 아니라 수용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

'말에서 크리스토까지'는 백남준이 1981년에 쓴 글의 제목으로, 이 글에서 작가는 통신수단과 운송수단이 분리되지 않던 시대에 인류가 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던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보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한 예술가였다. 또한 백남준은 텔레비전과 비디오 이후의 시대를 전망하며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텔레파시 등과 같은 정신의 힘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말에서 크리스토까지》전은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그에 따른 인류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고 커뮤니케이션 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간 백남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FROM
HORSE
TO CHRISTO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2. 《달의 변주곡》

기획전 《달의 변주곡》은 백남준의 대표작 <달은 가장 오래된 TV>가 보여주는 시간의 속성, 자연과 예술에 대한 백남준의 사유를 모티브로 시작되었다. 백남준은 <달은 가장 오래된 TV>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공간에 재현하는 동시에 인간의 상상을 달에 투영하던 전자시대 이전의 삶과 예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달이 그 형태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듯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도 시간의 변주에 착안한 작업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달의 주기와 어우러져 순환하는 시간,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 그림자의 몽환적인 환영, 채움과 비움을 반복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 등을 표현한다.

백남준을 비롯하여 전시에 참여한 다비드 클라르바우트, 료타 쿠와쿠보, 안규철, 안세권, 조소희, 히라키 사와는 시간의 흐름 자체를 담은 매체인 비디오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위의 과정을 기록한 설치, 가상의 시간성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시간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은 사진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멈춰선 듯 느리게 움직이고 순환하는 시간의 속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래 없는 속도 전을 펼치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고 예술적 체험을 통한 휴식과 명상, 사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켜켜이 쌓이는 시간의 기록, 영원처럼 보이는 순간의 시간, 서서히 변화되는 작품을 선보이는 《달의 변주곡》을 경험하면서 관객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적인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02 단체 관람 안내

1. 단체 관람 예약

인원수는 최소 20명, 최대 100명까지 관람 예약이 가능하며, 방문 10일 전까지 전화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에는 사전에 미리 연락 주시기 바라며, 100명 이상 단체의 경우 별도 문의해주시오. 단체 자유관람 시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솔자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체 관람 교사 혹은 인솔자의 사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 단체 도슨트 투어 예약

인원수는 20인 이상일 경우 예약이 가능하며, 시간대는 오전 (10:00~12:00), 오후(13:00~17:00) 각 1개 단체씩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어 소요시간은 1시간 입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에는 사전에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예약: 031-201-8529 /reservation@njpartcenter.kr

03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1. 학생단체 교육프로그램

1) 말하는 드로잉

-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단체
- 참가비: 1인 3,000원(입장료 포함)
- 개요: 1층 전시 <말에서 크리스토까지>와 연계한 초·중·고 학생 단체 교육프로그램으로 활동지를 활용하여 전시 작품을 집중 감상하고, 창작 표현 활동을 한다.
- 예약: 아트센터 홈페이지 예약
- 프로그램 문의: 031-201-8556/8558, edu@njpartcenter.kr

프로그램 명	말하는 드로잉: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전시 연계 프로그램		
기간	2014년 4월 7일(월) ~ 6월 20일(금) 6월 30일(월) ~ 7월 11일(금) (월 ~ 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10:00/13:00 각 1팀.	장소	교육실 / 1층 전시장
강사	권영경, 박희정	정원	20~40명
내용	1층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 (총 소요시간: 90분) 백남준의 작품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는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첫 번째 열쇠인 로제타석의 형태를 빌어 자신의 예술세계를 다섯 나라의 언어로 설명한 작품이다. 참가자들은 전시를 관람한 후 나만의 로제타석을 만들어 봄으로써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고민해 본다. *로제타 석은 고대 이집트 비석으로 이집트 상형문자, 민중문자,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다		

구분	시간	내용	장소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교육실
강의	15분	전시 소개 및 백남준 이야기	교육실
작품 감상	40분	활동지를 활용하여 1층 전시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작품 감상	1층 전시장
표현 활동	25분	말하는 드로잉: 백남준의 작품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와 연계한 나만의 로제타석 그리기	교육실
공유	5분	공유 및 정리	교육실

2) 그림자 놀이

-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단체
- 참가비: 1인 3,000원(입장료 포함)
- 개요: 2층 전시 《달의 변주곡》과 연계한 초·중·고 학생 단체 교육프로그램으로 활동지를 활용하여 전시 작품을 집중 감상하고, 창작 표현 활동을 한다.
- 예약: 아트센터 홈페이지 예약(1일 오전 1회/ 오후 1회 진행.)
- 프로그램 문의: 031-201-8556/8558, edu@njpartcenter.kr

프로그램 명	그림자 놀이: 《달의 변주곡》 전시 연계 프로그램		
기간	2014년 4월7일(월) ~ 6월27일(금) (월 ~ 금, 휴관일·공휴일 제외) 10:00/13:00 각1팀	장소	교육실 / 2층 전시장
강사	박희정, 권영경	정원	20~40명
내용	2층 《달의 변주곡》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 (총 소요시간: 90분) 현대 예술의 시간성을 탐구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감성을 일깨우고 명상과 사유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일상의 물건에 빛을 비춰 생긴 그림자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키는 로타 쿠와쿠보의 작품 <로스트 #9>과 연계하여 그림자 놀이를 해본다.		

구분	시간	내용	장소
소개	5분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교육실
강의	15분	전시 소개 및 참여 작가 소개	교육실
작품 감상	40분	활동지를 활용하여 2층 전시 《달의 변주곡》 작품 감상	1층 전시장
표현 활동	25분	료타 쿠와쿠보의 작품 <로스트 #9>과 연계한 그림자놀이	교육실
공유	5분	공유 및 정리	교육실

2. 토요문화학교 -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백남준아트센터의 토요문화학교인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는 주 5일제가 전면화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남준이 작성한 「종이없는 사회를 위한 확장된 교육」(1968)이라는 논문에서 차용한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는 백남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미디어 창작워크숍입니다. 이를 통해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는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하게 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감성을 일깨우고 상상력을 키워 미래를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융복합의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1강 <모음곡 031>

<모음곡 031>은 1970년대 뉴욕의 풍경을 전자 콜라주 방식으로 보여준 백남준의 작품 <모음곡 212>에서 출발합니다. 이 작품은 뉴욕의 인물, 건물, 문화, 뉴욕의 고유성 등을 백남준 특유의 유쾌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음곡 031>은 전자 콜라주 창작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가 처해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관찰하고 재치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영상 콜라주 프로그램입니다.

- 기간: 2014년 3월 15일 ~ 4월 5일, 매주 토요일
- 시간: 10:00~13:00
- 대상: 15세~19세, 20명
- 강사: 오재우, 손주영, 김혜원
- 장소: 아트센터 교육실 및 전시장
- 참가비: 무료
- 문의: 031-201-8556/ 8558, edu@njpartcenter.kr

* 3주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는 프로그램 종료 후 교육 수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프로그램 상세 내용

차수	단계	내용
1차 (3.15)	전자 콜라주 개념 이해하기 주변 풍경 수집하기	백남준의 <모음곡 212> 감상하기 주변 풍경의 이미지와 사운드 수집하기
2차 (3.22)	공간과 환경의 개념 이해하기	자신이 표현할 텍스트 수집하기 전자 콜라주의 개념에 맞게 작품 구성하기
3차 (3.29)	영상 미디어 활용하기	<모음곡 031>에 자신이 표현할 영상과 음악 찾기
4차 (4.5)	발표하기	<모음곡 031> 완성하기 발표하기

2) 2강 <그물짓기>

《달의 변주곡》의 참여작가인 조소희 작가의 작품 <... 어디...>와 연계한 창작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1인, 성인 1인의 2인이 한 팀이 되어 참여하는 가족 워크숍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볍고 미미한 존재인 실을 짜면서 시간의 흐름과 유연성을 보여준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가족이 함께 공유한 사건을 바느질을 통해 기록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흐르는 시간을 함께 하고 짜인 실처럼 엮히기도, 풀리기도 하며 살아가는 가족의 공통의 경험을 드러내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기간 : 2014년 5월 3일 ~ 5월 24일(각 1회, 매주 토요일)
- 시간 : 10:00~13:00
- 대상 : 초등학생 1인+성인 1인으로 구성된 10팀
- 강사 : 조소희 외
- 장소 : 아트센터 교육실 및 전시장
- 참가비 : 무료
- 문의 : 031-201-8556/ 8558, edu@njpartcenter.kr

3. 작가와의 대화

구분	일시	참가자	장소
스페셜 토크 1	2014. 4.19 오후 3시	안규철, 현시원	세미나실
스페셜 토크 2	2014. 5.17 오후 3시	안세권, 조소희, 이채영	세미나실

04 백남준 전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기획의도

2014년의 첫번째 백남준전인 《말에서 크리스토까지》전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말하고 또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백남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유를 그의 예술 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전시이다.

백남준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역사적 변천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정보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주목한 예술가였다. 전시 제목이기도 한 「말에서 크리스토까지」는 백남준이 1981년에 쓴 글의 제목으로, 이 글에서 백남준은 텔레비전과 비디오 이후의 시대를 전망하며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텔레파시 등과 같은 정신의 힘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마음을 담아 선물한 드로잉에서부터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비디오 조각 작품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핵심적인 예술작품을 관통하여 표현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그에 따른 인류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커뮤니케이션 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간 백남준의 작품을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말, 마을, 마음

한국의 말(言)

말(馬)

마루(中心)

マル(中心)

마을(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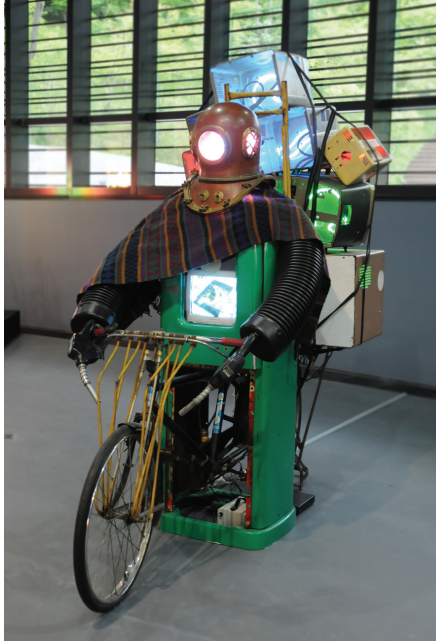
ムラ(village)

마음(心)

- 백남준,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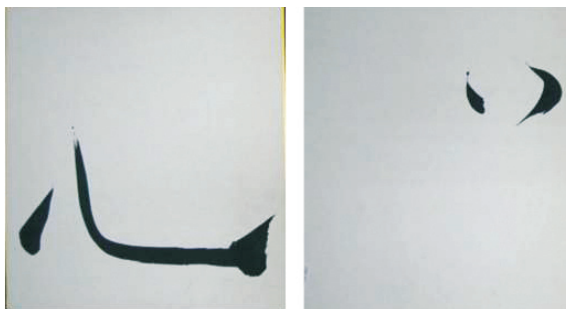
위의 글은 백남준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에게 보낸 회갑 축하 메시지 드로잉에서 발췌한 것으로 일본어와 한문, 한글을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백남준의 언어 표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백남준식의 언어 표현을 두고 그의 동료들은 '파йки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지칭하기도 했는데, 여러 나라의 언어를 섞어 사용하는 독특한 그의 언어 표현은 그가 거쳐간 다양한 문화권과 겹쳐지면서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메시지의 완벽한 수신을 원하지 않았던 백남준의 철학과도 연결되는데, 그는 쌍방향 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잡음, 즉 오역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메시지의 발신 뿐 아니라 수용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

첫 번째 섹션인 '말, 마을, 마음'에서는 이동수단과 통신수단이 분리되지 않던 시대에서부터 '초고속 전자고속도로'로 표현되는 인터넷 시대에 이르기까지 백남준에 의해 다양하게 변주되는 인류 문명의 여정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가장 원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말(言)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다양한 문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교류하면서 이룩해 온 인류 문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제작하였다. <징기스칸의 복권>, <코끼리 마차> 등의 비디오 조각 작품들은 모두 그의 이러한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백남준, <징기스칸의 복권>, 혼합매체, 100X260X220(h)cm, 1993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를 위해 제작한 로봇 중 하나로, 20세기의 징기스칸은 말 대신 자전거를 타고 있으며 잠수 헬멧으로 무장한 얼굴, 철제 주유기로 된 몸체, 플라스틱 관으로 구성된 팔을 가지고 있다. 자전거 뒤에는 텔레비전이 한 가득 실려 있고, 네온으로 만든 기호와 문자들이 텔레비전 속을 채우고 있다. 네온 기호들은 전자 고속도로를 통해 복잡한 정보들이 축약되어 전달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텔레비전 영상에서는 병에서 피라미드로, 도기에서 주전자로 변형되는 여러 가지 마스킹 기법이 사용되었고, 추상적인 기하학 패턴이 지속적으로 교체된다. 백남준은 이 작품을 통해 교통과 이동 수단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세계를 지배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광대역 통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이로 인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함을 강조한다.



백남준, <무제(心)>, 종이에 잉크, 각 25cmX25cm 연도미상

백남준은 자신의 기술적 조력자였던 슈야 아베에게 마음심(心)이 2획씩 나뉜 드로잉을 선물했다. 아베는 백남준의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여러 차례 해결하였고 1970년에는 백남준과 함께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개발하기도 했다. 백남준은 아베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라고 칭칭하면서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아베 역시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기보다는 그림자처럼 백남준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 작품은 두 장을 겹쳐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백남준,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로제타석)>, 판화, 71X86cm, 1995

백남준이 주창한 '전자 초고속도로'의 개념을 작가 자신에게 적용하여 만든 작품으로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 원정 당시 로제타 마을에서 발굴한 로제타석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로제타석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제작된 것으로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고대 이집트 민중문자, 고대 그리스 문자 등 세 가지 언어로 새겨 놓은 돌이다. 이 작품의 상단부에는 비디오드로잉이, 중간 부분에는 각국의 언어로 기술된 백남준의 예술 이력이, 하단부에는 백남준의 비디오 영상에서 발췌한 클립 이미지가 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백남준이 음악에서 비디오 아트로 관심을 돌리게 된 계기와 어떻게 플럭서스 예술운동에 동참했는지, 그리고 자신과 영향을 주고받았던 예술가들과의 관계에 대해 한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일어로 기술하고 있는데 백남준 예술의 발전단계와 흐름을 축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 생각해 보아요

- » 자신의 예술 이력을 5개의 언어로 작성한 백남준의 작품 <고속도로로 가는 열쇠>를 감상하고 '파이키쉬'로 불리운 백남준의 언어표현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 » 문자를 제외한 인류의 다양한 대화의 방식에 대해 말해봅시다.

○ 함께 해 보아요

- » <나만의 로제타석 만들기>
자신의 좌우명을 5개의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봅시다.

2) 전자 달

조명과 정보는 원래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조명하며 책을 읽기 위해 불을 밝힙니다. 이제 텔레비전에서 조명은 정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중세 교회의 창문들, 스테인드글라스를 보세요.

텔레비전은 왜 수많은 빠른 컷들을 만들어낼까요? 그것이 작기 때문이죠. 눈은 일정 속도의 자극을 필요로 하는데 텔레비전이 너무 작다 보니 더 많은 컷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텔레비전은 점점 더 피상적인 것이 되어갑니다.

당신에게 아주 큰 텔레비전이 있다면, 커다란 TV 수상기가 말이죠. 그렇다면 그 TV는 당신이 멈추어 생각할 수 있을 때 아주 심오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CBS 선데이 모닝'의 백남준 인터뷰 중에서, 1982

두 번째 섹션인 '전자 달'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백남준의 해석과 그에 따라 텔레비전의 기능을 변형시켜 제작한 작품들이 펼쳐진다. 백남준은 텔레비전을 달에 비유하여 인간 삶의 주기를 표현하고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귀중한 원천으로 인식하였다. 마치 중세인들이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신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듯이 현대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량을 통해 정보가 소통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참여TV>, <닉슨TV>와 같이 텔레비전의 내부회로를 변형시킨 초기의 작품들과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시간을 기반으로 한 매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TV시계>, 그리고 현대인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빛과 어둠을 탁월한 상징체제로 표현한 <TV 부처> 등이 전시된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20세기의 전자 달인 텔레비전은 소문이 전파되고 소통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채널로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백남준, <닉슨 TV>, 조작된 TV, 코일, 가변크기, 1965(2002)

미국의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얼굴 영상이 담긴 두 대의 텔레비전에 각각 8분 간격으로 코일을 통해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로 인해 닉슨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작품이다. 닉슨은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후보와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낙선하였는데, 백남준은 미디어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만들었다.



백남준, <x는 y, y는 x>, 신문 위에 드로잉, 71.5X56.5cm, 1974

<글로벌 그루브>의 WNET 텔레비전 편성표와 비디오 아트 프로그램 광고가 실린 1974년 1월 30일자 「뉴욕 타임즈」 위에 백남준이 드로잉을 한 작품이다. 신문의 70페이지에 난 광고와 맞은편 71페이지에 난 편성표 두 군데에 백남준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고 그 곳에 말풍선을 달아 'x는 y', 'y는 x'라고 적어 놓았다. 신문의 한 가운데에는 텔레비전을 연상시키는 네모 모양을 그려 넣었다. <글로벌 그루브> 광고 면을 보면 비디오 아트를 무언가 새로운 체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디오아트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아직까지 비디오 아트와 일반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이 나누어지지 않았던 1970년대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백남준, <TV 시계>, 24대의 조작된 텔레비전, 가변크기, 1978(1991)

백남준의 초기 텔레비전 설치 작품 중 하나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변형시키면서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속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총 24개의 텔레비전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텔레비전 진공관의 수직 유도장치를 제거하여 생겨난 선의 기울기를 달리해 하루 24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관객들은 한 눈에 24개의 모니터를 감상하면서 하루의 시간이 흘러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백남준, <TV 부처>, 폐쇄회로 카메라, 부처상, TV 모니터, 가변크기, 1974(2002)

모니터 앞에 부처상이 놓여 있고 폐쇄회로 카메라는 이 부처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모니터로 전송하여 보여준다. 참선을 하는 부처는 카메라를 통해 재현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백남준의 기념비적 작품 <TV 부처>는 1974년 그의 개인전(보니노 갤러리)에서 선보였다. 작가는 뉴미디어의 환경에 둘러싸인 현대인의 모습을 전통적이며 동양적인 부처상과 연결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술 문명이 가져온 빛과 어둠에 대해 환기시키고 있다.

🔴 생각해 보아요

» 백남준은 텔레비전의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텔레비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 외에 일상에서 텔레비전의 다른 쓰임새를 생각해보고 이야기 해봅시다.

🔴 함께 해 보아요

» <신문 드로잉>

자신이 태어난 날의 신문을 구해보고 그 날의 뉴스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백남준처럼 신문 기사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드로잉으로 표현해봅시다.

3) 비디오 공동시장

“텔레비전이라는 게 낙하산식으로 독재자의 기관이야. 윗사람이 얘기하고 아랫사람이 네 그럴습니다하고 듣는 게 텔레비전이거든. 뭐, 동서양을 막론해서. 근데 대답하는 게, 말대꾸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텔레비전은 여지껏 말대꾸를 못했잖아요.”

백남준, 'MBC 우리시대의 명인' 인터뷰 중
위성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1992

백남준은 텔레비전이 자국문화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국수주의적 매체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패한 이유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인의 물이해와 의사소통의 실패 때문이라고 보고 텔레비전을 통해 습득한 타문화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남준은 춤과 음악이라는 비언어적 소통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송용 비디오 작품을 제작하여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비디오 공동시장을 주창하였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인류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학의 문제였기에 그는 결코 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글로벌 그루브>, <모음곡 212>를 비롯한 수많은 방송용 비디오 작품들과 <손에 손잡고>와 같은 생방송 위성 프로젝트는 일방향의 텔레비전에 대한 백남준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성과이다.



백남준, <글로벌 그루브>, 컬러, 사운드, 28분 30초, 1973

뉴욕 방송국 WNET과의 협력으로 제작해 1974년 1월 30일에 첫 전파를 탄 이 작품은 '전지구적 흥겨움'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문화권의 춤과 음악을 연달아 이어붙인 백남준의 대표적인 비디오 작품이다. "지구상의 어떤 TV 채널도 쉽게 돌려볼 수 있고 TV 가이드 북은 맨해튼의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워질, 미래의 비디오 풍경이다"라는 소개로 시작하는 이 비디오에서는 로큰롤과 나바호족 인디언 여성의 북소리가 댕구를 이루고, 한국의 부채춤이 탭댄스 리듬과 부딪힌다. 또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와 슈톡하우젠의 전자음악이 이어지면서 문화적으로 대립된 요소들이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며 상호 공존한다. 백남준은 이처럼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을 이어붙임으로써 향후 우리 앞에 전개될 텔레비전을 통한 세계화를 전망하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복잡한 문화의 지형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백남준, <모음곡 212>, 컬러, 사운드, 1974

WNET이 추진한 실험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백남준이 총괄 기획하고 더글라스 데이비스, 저드 알커트, 시게코 구보타, 설리 클락, 프레드 바직 등의 여러 작가들이 함께 제작한 방송용 비디오 작품이다. 총 30여 편의 연작으로 구성된 <모음곡 212>는 그날의 방송이 끝나기 전에 3분~8분

분량으로 방송되었으며 212는 뉴욕 지역의 전화번호를 나타낸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전자 콜라주의 빠른 편집과 유쾌한 사운드 등이 더해져 30편의 뮤직 비디오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작품들은 국제적이며 거대한 도시, 뉴욕의 다문화성을 개인의 관점에서 다채롭게 조망하고 있다.



백남준, 그레고리 배트콕, <중국에서는 우표를 할 수 없다>, 컬러, 사운드, 28분 34초, 1978

백남준은 WNET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예술가들이 베트남, 중국, 뉴욕, 모스크바 등 여러 도시를 비디오로 탐사해보는 <비자(Visa)> 시리즈를 기획하였다. 이 작품은 <미디어 서틀-모스크바/뉴욕>과 함께 그가 직접 제작한 비디오 작품이다. 배를 타고 중국 여행을 다녀온 비평가 그레고리 배트콕과 3명의 여행객이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 촬영한 비디오를 함께 보며 나눈 대화를 담은 이 작품은 타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실질적인 문화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여행지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보여준다. 백남준은 이 시리즈에서 각 나라의 문화를 탐구하기보다 비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 충돌의 지점을 끄집어내고자 했다”고 언급하였다.



백남준, <손에 손잡고>, 컬러, 사운드, 42분 19초, 1988

1977년 카셀의 <도큐멘타 6 위성 생방송>에의 참여를 시작으로 백남준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바이 바이 키플링>(1986)에 이어 1988년 9월 10일, 그의 네 번째 위성 프로

젝트인<손에 손잡고>를 선보였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스라엘, 중국, 소련, 아일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의 방송국과 함께 협업한 이 프로젝트에는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와 전위 무용가 라라라 휴먼 스텝스가 함께 하는 무대에 이어, 백남준의 작품 <다다익선> 앞에서 사물 놀이가 펼쳐지고 구소련의 음악가 세르게이 큐효힌과 그의 밴드가 레닌그라드(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류이치 사카모토와 머스 커닝햄도 각각 도쿄와 뉴욕에서 공연하였다. 이처럼 백남준은 팝 연주자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모습을 콜라주하여 전 세계의 안방에 실어 보내는 생방송 위성 쇼를 통해 국경을 넘어서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 🔗 생각해 보아요

» 텔레비전에 나오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조사하여 대륙별로 그 내용을 분류해봅시다.

혹시, 각 나라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 고정된 시각이 있지는 않은가요? 텔레비전을 통해 전파된 고정된 시각이 그 나라에 대해 우리가 갖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 🔗 함께 해 보아요

» <모음곡 만들기>

공통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음악과 춤 등의 영상 이미지를 수집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해보아요.

기획전 05 《달의 변주곡》

기획의도

《달의 변주곡》은 백남준의 대표작 <달은 가장 오래된 TV>가 보여주는 시간의 속성과 예술에 대한 백남준의 사유를 모티브로 시작되었다. 백남준은 <달은 가장 오래된 TV>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공간에 재현하는 동시에, 인간의 상상을 달에 투영하던 전자시대 이전의 삶과 예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시에 참여하는 다비드 클라르바우트, 료타 쿠와쿠보, 안규철, 안세권, 조소희, 히라키 사와는 비디오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위의 과정을 기록한 설치, 가상의 시간성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시간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은 사진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백남준과 함께 멈춰선 듯 느리게 움직이고 순환하는 시간의 속도를 제시한다. 관객들은 전시를 경험하면서 유래 없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현대인의 일상을 돌아보고, 이러한 예술적 체험을 통해 명상의 순간, 사유와 시적인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달의 변주곡>은 시간을 재료로 삼는 비디오 아트의 속성에 주목하여 관람객들에게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이다. 동시대 미술 전시를 감상하면서 전문적인 배경 지식 없이 작품을 감상하기 어렵거나, 전시를 본 후 오히려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 <달의 변주곡>은 이러한 전시들과 달리, 현대미술이 어렵고 낯설다는 편견을 넘어 예전에 달을 지긋이 바라보면서 가졌던 관조의 시간, 작품과 차분히 마주하며 소통하는 명상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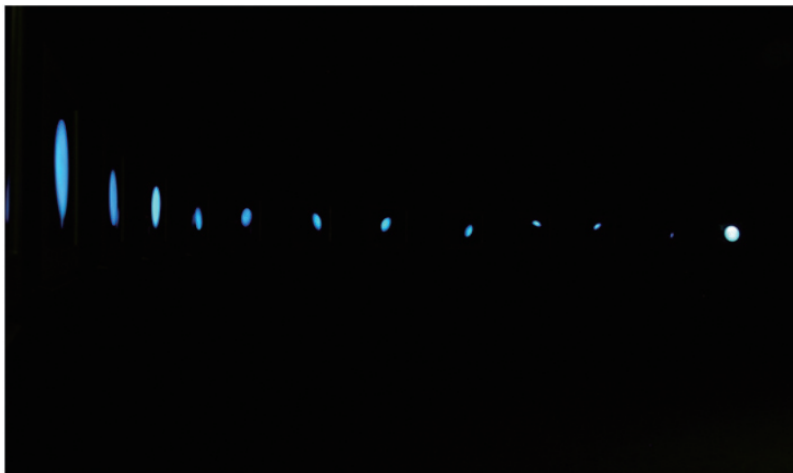
1) 달은 가장 오래된 TV

“나는 TV로 작업하면 할수록 신석기시대가 떠오른다. 왜냐면 둘 사이에는 놀랄 만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바탕을 둔 정보 녹화시스템에 연결된 기억의 시청각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는 노래를 동반한 무용이며, 다른 하나는 비디오다... 나는 사유재산 발견 이전의 오래된 과거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다. 비디오 아트는 신석기시대 사람들과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비디오는 누가 독점할 수 없고, 모두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공동 재산이다”

백남준, 「DNA는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다」 중에서, 1988

주요작품

백남준(1932-2006, 한국)



<달은 가장 오래된 TV>, 비디오 설치, 1965(2000)

백남준의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달이 순환하는 자연의 시간과 이와 어우러진 인간의 삶, 신화와 예술에 대한 백남준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백남준은 이 작품을 1965년 뉴욕 보니노 갤러리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당시에는 진공관 TV에 자석을 갖다 대어 달의 각기 다른 모습을 만들어냈다. 진공관 TV가 단종된 이후에는 구형으로 생긴 물체를 촬영하여 텔레비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2000년도에 제작된 작품으로, 보름달에서 그믐달로 이어지는 12개의 달을 담은 텔레비전과 이 작품을 모티브로 1997년에 제작된 비디오가 추가된 총 13대의 텔레비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남준은 보름달 안에서 떡방아를 찧는 토끼의 모습을 떠올리는 한국의 전승동화를 연상하면서, 인간의 상상력을 투사한 달과 현대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또 다른 달인 텔레비전을 연결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인간의 상상을 달에 투영하던 전자시대 이전의 삶의 풍경과 함께 달의 변화라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한다.

2) 멈춤의 시간

영상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순간의 시간을 세밀하게 조각하는 다비드 클라르바우트는 <일터에서 돌아오다 폭우에 발이 묶인 (나이지리아 쉘 사社) 정유 노동자>에서 비를 피해 교각 아래 멈춘 노동자들의 '찰나'의 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회귀시킨다. 히라키 사와의 <하코>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계의 영상과 함께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여섯 개의 화면으로 관객에게 관조와 명상의 시간을 부여한다. 고정된 하나의 지점에서 같은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그 장소가 지닌 시간의 얼굴을 드러내는 안세권은 <서울 뉴타운풍경, 월곡동의 사라지는 빛 I, II, III> 시리즈 등에서 기다림 자체가 예술이 되는 관찰자로서의 예술가의 면목을 보여준다.

주요작품



<일터에서 돌아오다 폭우에 발이 묶인 (나이지리아 쉘 사社) 정유 노동자>
HD 컬러 애니메이션,
무음, 반복, 2013

다비드 클라르바우트(b.1969, 벨기에)

벨기에 출신의 다비드 클라르바우트(David Claerbout)는 앤트워프 국립 고등 예술 학교(Nationaal Hoger Instituut voor Schone Kunsten, Antwerp)에서 수학한 이후 사진, 비디오, 사운드,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작품을 구사하는 예술가이다. 주로 사진과 영상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규모 비디오 설치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인터넷에서 찾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다. 비를 피해 교각 아래로 모여든 정유 노동자들의 사진에 감화된 다비드 클라르바우트는 이 사진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다. 작가는 각기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25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지된 시간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축하였다. 이 작품은 노동자들이 멈춰 선 순간의 시간을 세밀하게 잘라낸 것을 이어 붙여 '찰나'를 영원의 시간으로 회귀시킨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 지친 노동자들의 '기다림'이 이야기하는 '지루함'이라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만들어낸 미학은 다국적 기업, 아프리카의 빈곤, 타자에 대한 카메라의 관찰자적 시선에 대한 복합적인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실재보다 더 사실적인 가상의 이미지가 창조한 허구의 시간을 곱씹게 한다.

히라키 사와 (b.1977, 일본)



<하코>, 6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12분,
2007

런던 슬라이드 컬리지에서 조각을 전공한 이후 이스트 런던 대학에서 순수 예술을 전공한 히라키 사와(Hiraki Sawa)는 일본 이시카와에서 출생하여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2005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를 비롯하여 제 6회 비스바덴 아시아-퍼시픽 트리엔날레, 시드니 비엔날레 등에 참여하며 꾸준히 국제적인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히라키 사와의 <하코>는 각기 다른 제목을 지닌 6개의 비디오가 동시에 상영되는 6채널 비디오 작품이다. 이 작품은 12분 동안 시계를 촬영한 비디오를 편집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시간의 흐름을 제시하는 <파편>,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 위를 떴 지어 날아가는 새 <새와 바다>, 녹음이 울창한 숲을 비추는 햇빛 <이끼>, 문 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창문으로 달 그림자가 드리워진 집 <벽에게 말을 걸다>, 관람차가 돌아가는 쓸쓸한 바다 풍경 <순간을 위하여>, 저 멀리 발전소가 보이는 <돌아오는 길>의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두운 전시장을 가득 채운 영상과 고요한 사운드는 관객으로 하여금 압도적인 자연이 제시하는 숭고한 아름다움과 낭만을 느끼면서 명상과 관조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한다. 6개의 비디오는 각기 다른 풍경을 담고 있지만 관객은 여러 개의 화면을 한 지점에서 응시하며 각각의 이미지가 파도처럼 겹치고 사라지는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안세권 (b.1968, 한국)



<서울 뉴타운 풍경, 월곡동의
사라지는 빛 I>,
디지털 C 프린트,
180x250cm, 2006

재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서울의 도시풍경을 렌즈에 담은 사진작가로 잘 알려진 안세권은 2013년 ZKM 미디어아트센터 단체전, 2011년 성곡미술관 개인전, 2006년 인사아트센터 개인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가이다. 안세권은 기다림 자체를 예술로 표현하는 관찰자로서의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고정된 지점에서 동일한 각도로 하나의 장소를 수년 간 촬영한 사진들은 장소와 함께 변화하는 시간의 얼굴을 보여준다. 재개발 이전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던 월곡동 산동네의 풍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을 잃고 결국 회색의 아파트 숲으로 변모해간다. 도시의 상처와 아픔이 가려진 밤의 풍경 속에서 관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멸과 생성, 그리고 그것들의 반복이 남긴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청계천 고가도로가 해체되고 복개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촬영했던 작가의 <청계천 시리즈> 역시 곧 사라질 도시의 풍경에 대한 관조적인 시선을 제시한다. 작가는 묵묵히 도시를 지켜보는 파수꾼처럼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지킨다. 그렇게 카메라에 담긴 풍경은 폐허와 같은 공사장 한복판을 아름다운 빛의 풍경으로 변모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의 상처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
*** 생각해 보아요**

» 어떤 하나의 동작을 촬영하고 이것을 약 10배의 길이로 늘려서 재생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 지 서로 이야기 해봅시다.

»» 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람해봅시다. 느리게 재생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3) 달 그림자

한 점으로 빛을 모아 인공 달을 띄우는 <달을 그리는 법>,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다섯 개의 무지개> 등 안규철의 설치 작업들은 비우고 채우며 켜켜이 쌓여가는 일상의 시간이 바로 삶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보여준다. 연약하고 변형되기 쉬운 사물로 공간을 수놓는 조소희는 사물들의 유연한 성질에 주목한다. 매일 한 자루의 초가 전시 공간을 비추는 <비과학적인 촛불의 시학 II>에서 이 초들은 점차 줄어가면서 시간의 존재를 보여줄 것이다. 료타 쿠와쿠보의 <로스트 #9>은 빛을 품은 그림자가 만드는 몽환적이고 시적인 풍경을 제시한다. 미니 기차의 레일을 따라 빛이 이동하며 드리우는 흑백의 도시 풍경은 태초부터 있었던 밤의 환영, 은밀한 달의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주요작품

안규철(b.1955, 한국)



<하늘 자전거>, 자전거,
캔버스에 아크릴, 철
250x70x180cm, 싱글채널
비디오, 6분 35초, 사운드, 2011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한 안규철은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이자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가이다. 안규철의 설치 작업들은 비우고 채우며 켜켜이 쌓여가는 일상의 시간이 바로 삶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 <달을 그리는 법>은 전시장의 조명을 거울로 반사시켜 어두운 벽면에 모으는 작품이다. 어린이가 돋보기 놀이를 하듯 빛을 모아서 전시장에 달을 띄운 이 작업과, 하늘을 그린 그림을 옆에 싣고 달리는 기발한 자전거인 <하늘 자전거>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꿈꾸는 작가의 사유가 엿보인다.

원을 그리는 컴퍼스 다섯 개가 하얀 합판에 걸려있는 <다섯 개의 무지개>는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작품이다. 관객들은 컴퍼스에 필기구를 꽂고 자신만의 무지개를 그려나가고, 하얀 합판은 수많은 선들로 이루어진 다섯 개의 무지개로 채워진다. 소소한 행위가 각기 다른 모습의 결과물로 축적되고 그것이 작품으로 탄생되는 것이다. 전시장 창밖으로 보이는 잔디밭에는 푸른색 문구가 보인다. 아직 잔디가 올라오지 않아 누렇게 변해 있는 잔디밭 위에서 돋보이는 푸른 글씨들은, 봄이 되고 풀이 자라나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안규철의 작품들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전시장을 변화시키는 시간의 기록이 될 것이다.

조소희(b.1971,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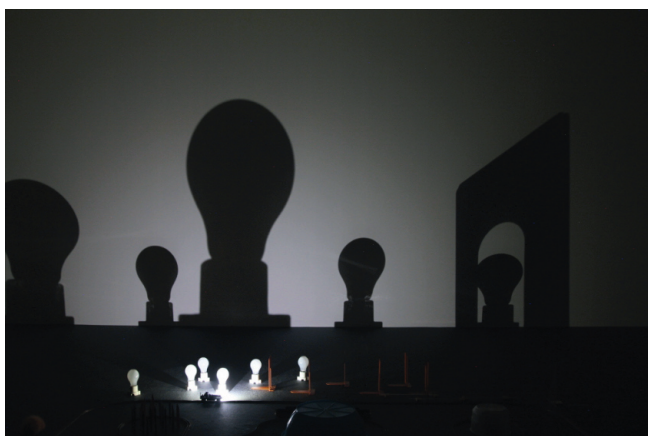


<...어디...>, 실, 나무의자,
실패, 가변설치, 2014

조소희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물을 하루하루 기록하고 모은다. 거즈, 면 아사, 트레이싱지에 매일 타이핑하면서 쓰는 <편지> 작업에는 그날 작가를 사로잡은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타이핑되어 있다. <비과학적인 촛불의 시학 II>는 매일 한 자루의 초로 전시 공간을 비추는 작업이다. 촛대의 주변에는 전시 기간 동안 사용할 초들이 놓여져 있고 이 초들은 점차 줄어가면서 시간의 존재를 보여줄 것이다. <...어디...>는 작가가 한 땀 한 땀 실을 엮어서 공간을 직조해 가는 작품이다. 공간과 공간 사이를 실로 연결하고 채운 이 작품의 공간 안에는 명상을 위한 관객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수행하는 작가의 노동이 응축된 결과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할 수 있다. 연약하면서 변형되기 쉬운 사물로 공간을 수놓는 작가는 특정한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 사물들의 유연한 성질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오브제들은 작가의 작은 행위와 시간의 결과물로서 삶의 증거가 된다.

회화를 전공하고 파리 1대학에서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소희는 부드러운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을 점유하는 설치미술가이다. 2013년 살롱 드 에이치, 2011년 선컨템포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동덕여대, 백석대학원 미술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료타 쿠와쿠보(b.1971, 일본)



<로스트 #9>, 설치, 2013
(사진: 키오쿠 케이쵸)
Courtesy: NTT InterCommunication
Center [ICC]

빛을 밝히며 달리는 모형 기차가 바구니, 실패, 삼각자, 목욕 솥, 백열등 등 일상 오브제를 비추며 생겨난 벽의 풍경이 만드는 몽환적인 세계. 료타 쿠와쿠보(Ryota Kuwakubo)의 <로스트 #9>을 통해서 관객은 기계에 부여된 시간을 따라 새로운 여행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행은

빛을 품은 그림자가 만드는 시적인 풍경을 제시한다. 레일을 따라 빛이 이동하면서 만드는 흑백 도시의 풍경은 태초부터 있었던 밤의 환영, 은밀한 달의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이 작품의 제목은 ‘빛(Light)’, ‘오브제(Object)’, ‘공간(Space)’, ‘시간(Tim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스스로를 경제부흥 이후 세대를 뜻하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부르는 작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작가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쌓아 올린 화려하고 거대한 미디어 아트보다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미디어의 구현을 통해 감성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형태는 관람자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되면서 동시에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재편하도록 유도한다.

료타 쿠와쿠보는 IAMAS(Institute of Advanced Media Arts and Sciences)를 졸업하고 츠쿠바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나누는 전자장치와 관련된 작품을 주로 제작하면서, 다른 작가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며, 상품이나 장난감 개발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쿠와쿠보의 작품은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주로 로우-테크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것들로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 생각해 보아요

» 백남준은 시간을 담을 수 있는 매체인 비디오가 삶을 닮았다고 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빨리감기와 되감기 버튼이 삶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간에 매여 있는 예술로 음악과 춤을 언급하며 비디오 아트와 함께 이동의 용이성이라는 공통점도 언급했습니다. 비디오 아트와 음악, 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참고문헌

- 강태희 외, 『백남준 추모 문집: TV 부처 백남준』, 삶과 꿈, 2007
- 김성은, 「백남준의 '텔레비주얼' 인류학: 세상을 달리 보기, 서로를 접속하기, 너머를 사유하기」,
『TV 꼬문, 달리-서로-너머』, 백남준아트센터, 2011
- 김홍희, 『백남준과 그의 예술: 해프닝과 비디오 예술』, 디자인하우스, 1992
- 박상애, 「모음곡 212: 비디오 테이프 분석」, 『NJP Reader #4』, 백남준아트센터, 2013
- 백남준 글, 에디트 데커, 이르멜린 리비어 엮음, 『백남준: 말에서 크리스토까지』,
백남준아트센터, 2010
- 임산, 『청년, 백남준: 초기예술의 융합미학』, 마로니에북스, 2012

07 작가 자료

다비드 클라르바우트

<http://www.davidclaerbout.com/>

료타 쿠와쿠보

<http://ryotakuwakubo.com/>

히라키 사와

<http://www.jamescohan.com/artists/hiraki-sawa/>

<http://www.otafinearts.com/en/artists/hiraki-sawa/>

안세권

<http://www.ahnsekwon.com/>